

청소년 자살생각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n Analysis on Determinants of Youth Suicidal Ideation

홍명숙*

<요약>

본 논문은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그러한 요인들이 자살생각에 이르는 영향력의 정도를 밝히려 하였다. 청소년은 자기 자신과 환경적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과 주관적 해석 결과에 따라 반응하므로 청소년의 자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적·환경적 맥락의 이해가 중요하다.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경고한다거나 자살행동 억제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비효과적이다. 왜냐하면, 자살은 자살생각-자살계획-자살시도-자살행동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현상이므로 가장 선행단계인 자살생각을 지니고 있는지의 유무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 학교요인, 사회요인 중에서 가족요인에는 부모학대·폭력, 친인척자살경험을, 학교요인에는 학교폭력, 학교부적응을, 사회요인에는 자살사이트 방문, 연예인 자살보도로 구성하고, 우울과 사회적 지지가 매개요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지, 이들 요인들이 어느 정도나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다.

이 모형은 $R^2=0.475$, ($adjR^2=0.462$), $F=76.460$ 로 설명력이 비교적 높았으며, 독립변수인 부모학대 및 폭력, 친인척 자살, 학교폭력, 학교부적응, 자살 사이트 방문, 연예인자살 보도 등 모두 1~5% 유의수준에서, 매개변수인 우울과 사회적 지지는 1~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었

으며, 우울은 자살생각의 강화요인, 사회적 지지는 자살생각의 완화요인으로 효과가 있었으며, 성별 더미변수도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핵심 주제어 : 자살생각, 우울, 사회적 지지, 강화요인, 완화요인

목 차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자살생각
2. 자살생각에의 영향 요인

III. 연구설계

1. 가설의 구성과 분석의 틀
2. 조사도구(설문의 구성)

3. 자료의 수집과 분석

IV. 분석결과와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적 특성
2. 모형의 타당성 분석
3. 독립변수의 영향력 검토
4. 매개요인의 매개효과 분석

V. 결 론

I. 서 론

날로 복잡다단해지는 현대사회에서 우리사회에서도 다른 나라의 사회와 유사하게 청소년 문제의 여러 변화들 가운데 청소년의 자살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는 2011년 인구 10 만 명당 자살률이 3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평균자살률 12.8 명에 비교하여 2.6 배나 높고, 자살률이 1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11.2%가 자살생각을 한번 이상 해보았다고 하였으며, 자살을 계획하면 과반수가 1년 이내에 자살을 시도해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2015). 청소년의 자살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가족이나 친구들에게도 건널 수 없는 힘든 상처가 되며, 심각한 파급효과를 지닌 사회문제로 국가의 지대한 관심이 필요한 문제라 하겠다.

청소년기는 발달단계상 가장 변화가 심한 시기로 가정과 학교, 또래, 지역사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사회적 관계를 이루어 나가고 있으나 주변 환경을 통제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충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살을 생각하기도 하는 것으로 유추되고 있다(이창식·정미나·김윤정, 2012).

자살은 하나의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으로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에서 출발한다(차미영, 2010; 하정미, 2011). 자살생각은 단순히 생각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

라, 개인이 경험한 여러 환경요인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단계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자살생각은 자살시도나 자살행위보다 논리적으로 앞서는 것이며, 자살생각을 많이 할수록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도 또한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우울의 강화효과와 사회적 지지의 완화효과를 탐색하는데 그 연구의 목적이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의 자살생각

1) 자살의 개념

자살(自殺)이란 ‘자기의 생명을 끊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자살에 대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치명적인 결과를 자행하는 자해행위’라 정의를 내리고 있다. 자해행위란 ‘어느 정도의 자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인지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체에 가한 상해 행위’라 정의하고 있으며, ‘자기 신체를 치명적으로 해롭게 하거나 생명을 고의(故意)로 위협에 빠뜨리게 하여 죽음의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 정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자살이란 ‘장차 일어날 결과를 알고 자신의 신체에 가하는 행위로서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행동을 통해 직·간접으로 죽음을 초래할 목적으로 행하는 자살에 대한 살인행위’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Durkheim, 1951). 즉, 자살이란 죽으려는 생각을 가지고 그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면서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스스로 선택한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김진주, 2011).

또다른 시각에서 ‘자살은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하려는 행위가 아니라 실망, 고통, 분노 등의 심리·정서적으로 힘든 감정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거나 자신의 정서적 괴로움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지추련, 2012). 특히 청소년의 자살은 충동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청소년기에는 자살 시도율도 높다. 그 이유는 청소년들이 자살을 계획적으로 시도하기보다 충동적인 감정에 의해서 자살을 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자살생각

자살생각이란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하여 심리·정신적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이라

정의를 내릴 수 있다. 좀더 좁은 의미로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거나, 죽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것, 자살에 대하여 생각을 하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는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자살을 할 것인가’와 같은 자살행동을 직접적으로 떠올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자살생각은 기분장애에 의하거나 인격 장애를 비롯하여 자해행위로 인한 병적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심각할 정도의 자살생각을 한 사람이 실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확실하고 행동가능한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자살생각은 자살계획, 자살시도와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연속선상에서 자살을 바라보고 있으며, 죽음의 위험을 내포하고 자살에 대하여 예견하며 결정지을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서 청소년의 자살 연구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개념이다(지추련, 2012). 따라서 자살생각은 ‘자신의 신체를 해치거나 죽음으로 이르게 하려는 생각’ 또는 ‘자살을 행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 ‘자기의 목숨을 끊고 싶어 하는 생각’ 등의 생각을 포함한다.

자살행동은 좀더 구체적으로 자살생각, 자살계획, 자살시도, 자살실행 등 4가지 단계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다. 자살생각(suicidal ideation)이란 죽음에 대한 일반적 생각으로부터 자살하려는 방법에 대한 생각까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자살생각은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고 심리·정서적으로 머무는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자살계획(suicidal plan)이란 자살하기 위해 관련된 준비를 하는 행동을 말하지만 자해에는 이르지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자살생각을 넘어서는 것이며, 자살하기 위한 행동을 내포하지만 자해 행동에는 아직 이르지 않고 유서를 작성하거나, 자신의 소지품을 정리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자살하려는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자살시도(suicidal attempt)란 고의적으로 자해행동을 하는 상태로써 자살하기 위해 고의적·실제적 자해 등을 포함하는 단계이다. 자살실행(suicidal completion)이란 자살에 이른 상태로써 실제 자살을 실행에 옮기는 행위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살생각은 자살행위의 연속적 과정의 출발점이며(김민경, 2012), 자살생각을 기점으로 자살계획, 자살시도, 자살행동으로 이어지는 자살하는 행위 중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아주 경미한 상태의 자살에 관한 생각이라도 나중에는 더 심각한 상태로 발전되거나 바로 자살시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김형수, 2006).

2.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기의 자살생각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으로 스트레스-대처이론(Lazarus and

Folkman, 1984)이 있다. 이 이론에서는 대처의 개념을 ‘개인이 보유한 자원을 통하여 다양한 자극에 대응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면서, 개인이 겪게 되는 수많은 스트레스 사건 속에서 스트레스의 정도를 어떻게 완화시키는데에 따라 개인의 판단, 인지, 사고와 태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학업스트레스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청소년들의 경우는, 부정적인 감정과 정서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격성, 분노와 더불어 자살생각의 증대를 겪게 된다는 것이다.

자살생각은 생애주기 중에서 청소년기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자살예방의 대안이 제시되는 것은 당연하다(Horwits, Hill, and King, 2011). 따라서 청소년들의 자살예방을 위해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과 청소년 자살생각과의 관계를 규명하고, 이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각적인 자살예방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청소년기의 독특한 특성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청소년기는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상처받기 쉬운 불안한 위기의 시기로서 아동기를 벗어나 성인기로 발달하는 과정의 긴 세대로 급격한 생물학적·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며, 자아의식의 발달과 부모로부터의 독립, 억제된 환경으로부터 이탈을 하고자 하는 심리적·정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신체적으로는 성(性)호르몬의 분비증가와 더불어 2차 성장이 나타나고 신체적·성적발달이 촉진되며, 심리적으로는 감정의 기복이 심하고 불안정하다. 사회문화적으로는 여러 유형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사회관계를 맺어가는 한편, 대중매체나 유해환경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청소년기는 다양한 환경에 노출될 때 충동적이고, 극단적인 자살생각과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으며 심리적 갈등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소년의 자살생각은 개인심리적 요인에 덧붙여 다양한 요인에 의하여 강화될 수도 있다(장은진, 2011).

이러한 주변 환경의 여러 요인 중에서 가족요인(최인재, 2010; 이근영 외, 2011), 학교요인(우채영·김판희, 2011), 사회요인(고성은·홍혜영, 2009; 장선희·이미애, 2010) 등 대인관계로 인한 요인들이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또래와의 관계에서 소외되거나 대인관계 능력이 미숙한 청소년들은 자살생각을 하게 된다(이창식·정미나·김윤정, 2012).

1) 가족요인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하여 가족요인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빈곤, 가족 간의 갈

등 및 편애, 편부모와 결손가정 문제 등 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부모의 학대와 폭력, 친인척, 지인(知人)의 자살경험을 중심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① 부모의 학대와 폭력: 인간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환경 속에서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사고하고, 행동하며, 또 감정을 모방하고 배움으로써 자신의 사고와 행동을 형성하게 된다. 인간이 출생하여 최초로 기본적인 행동을 배우는 곳은 가정이다. 즉, 인간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부모의 행동과 역할을 학습하게 된다 (Bandura, 1973). 양육자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가하는 폭력행위는 사회화 과정에서 학습되며, 가정환경 중에서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은 청소년의 분노를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자살행동으로 이어진다. 요약하면,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자살의 생각을 증가시킨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② 친인척의 자살경험: 친인척의 자살경험은 가족의 영향과 심리병리적인 요인보다는 유전적 요인이 원인이 될 수 있으며(Gould, et al., 2003), 가족해체와 가족의 정신병력, 자살의 가족력, 그리고 아동기 학대 등 특정한 가족요인들은 청소년 자살생각의 공통요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Evans, 2004). 이러한 지적은 청소년들의 친인척 자살경험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있어서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정적(正的)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겠다.

2) 학교요인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학교요인에는 성적, 교우관계, 선생님과 관계, 사교육 문제 등 많은 요인이 있을 수 있으나, 학교폭력과 학교에의 부적응, 특히 학업 스트레스를 중요하게 지적할 수 있다.

① 학교폭력: 학교폭력이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의 의사에 반하여 학교 내외에서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학교폭력은 학생들 사이에 공포분위기를 형성하고 피해학생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있어 자살생각의 강화요인(위험요인)이 된다. 선행연구에서도 학교폭력은 자살생각의 강화요인으로 지적되고 있고(고선, 2009; 박재연, 2010), 학교폭력의 피해 청소년들의 자살가능성이 높음을 지적하고 있으며(Rigby and Slee, 1999; Brunstein et al., 2007),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서로 연관성이 있다고 한다(박재연, 2010).

② 학교 부적응(학업 스트레스): 청소년들은 하루의 일과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

에서 보내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청소년에게 영향력이 많은 곳이다. 그러므로 학교에의 적응은 청소년기에는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은 불안과 절망, 소외감을 느끼며 소극적이고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에서 문제행동을 야기하게 된다(김애희·윤종희·김리진, 2010).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특히 학업 스트레스를 가진 청소년일수록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다고 한다(김재엽·이근영, 2010).

3) 사회요인

사회요인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사회적 불평등이나 차별대우, 미래의 불투명한 희망, 사회적 무관심 등의 요인도 있으나 관련연구에서 자주 지적되는 인터넷 자살 사이트의 영향과 대중매체의 연예인 자살보도의 영향을 중심으로 검토한다(박종익, 2012; 신선철, 2012; 임채근, 2013; 경향신문, 2013).

① 자살사이트의 방문: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익명의 사람들과 자살을 의논하고 정보를 제공하며 자살을 도와주기까지 하는 자살사이트의 등장으로 인터넷을 통한 자살 관련 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습득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자살사이트가 동반자살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자살동조자들이 함께 자살을 생각한다고 알려져 있다.

② 연예인의 자살보도: 언론보도와 인터넷, SNS, 스마트 폰 등을 포함하는 대중매체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며, 이들 간에는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음도 알 수 있고, 특히 연예인 자살보도의 영향력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강화요인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의 자살보도나 유명 정치인의 자살보도 이후 청소년의 모방 자살이 아주 높아지고, TV보다는 신문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진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Stack, 2000).

4) 매개요인(강화요인과 완화요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독립변수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를 강화 또는 완화하는 요인으로는 우울과 사회적 지지를 들 수 있다. 우울은 자살생각에의 강화(위험)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는 완화(보호)요인으로 생각된다.

① 우울: 우울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서 근심을 하거나 침울한 상태로 지속하거나 실패감과 상실감으로 무기력해지고 무가치감을 느끼는 정서장애를 말한다. 우울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정서적 감정의 하나이며, 정상적인 사람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나타내는 가벼운 우울증상에서부터 정신치료의 도움을 받고 있

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우울증을 통해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증세는 죽음에 대하여 자살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거나, 자살시도나 자살하려는 구체적인 행동하는 단계에 이르기도 한다. 우울증은 자신감이나 자아 존중감이 떨어지고 매일 무가치하다는 느낌 또는 부적절하고 과도한 책임감을 가지는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박병균, 2006).

②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사회 환경에서 타인이 행동하는 지지적 방식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Helgeson, 2003),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어려운 개념이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란 넓은 의미로는 개인이 대인관계로부터 제공받는 다양한 자원을 의미하는 것이며(Cohen and Hoberman, 1983), 구체적으로 가족이나 친구 및 동료 같은 타인으로부터 정보나 도구, 정서적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House and Kahn, 1985).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완화시킬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조성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는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고 사망률과 질병률을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이며,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이나 자살시도와는 부적(負的)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Fergusson, 2000).

5) 성별요인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검토하면서 남학생과 여학생 간에 있어서 성별의 영향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더미변수(dummy variable, 가변수)로 고려할 것이다.

Ⅲ. 연구설계

1. 가설의 구성과 분석의 틀

(1) 가설의 구성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가족요인, 학교요인, 사회요인과 우울 및 사회적 지지라는 요인과 변수들로부터 가설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① 가족요인과 관련된 가설: 가족요인과 관련하여서는 부모의 학대와 폭력, 친인척의 자살경험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 두 변수로부터는 다음 가설 1, 2를 구성

하였다.

가설 1: 부모의 학대와 폭력이 많아질수록 자살생각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친인척(지인, 또래 포함)의 자살하는 것을 보고 듣는 경험이 많아질수록 자살생각은 높아질 것이다.

② 학교요인과 관련된 가설: 학교요인과 관련하여서는 학교폭력, 학교생활에의 부적응을 변수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 두 변수로부터는 다음 가설 3, 4를 구성하였다.
가설 3: 학교폭력을 많이 경험할수록 자살생각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4: 학교적응을 하지 못할수록 자살생각은 높아질 것이다.

③ 사회요인과 관련된 가설: 사회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자살사이트의 방문, 연예인에 대한 자살보도를 변수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이 두 변수로부터는 다음 가설 5, 6을 구성하였다.

가설 5: 자살사이트의 방문이 많아질수록 자살생각은 높아질 것이다.

가설 6: 연예인에 대한 자살보도에 많이 접할수록 자살생각은 높아질 것이다.

④ 우울과 사회적지지: 우울과 사회적 지지는 자살생각에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우울은 자살생각에 (+)의 영향을, 사회적 지지는 자살생각에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한다.

가설 7-1: 우울은 부모의 학대·폭력, 친인척의 자살경험과 자살생각의 영향관계에서 자살생각을 높일 것이다.

가설 7-2: 우울은 학교폭력, 학교부적응과 자살생각의 영향관계에서 자살생각을 높일 것이다.

가설 7-3: 우울은 자살사이트의 방문, 연예인에 대한 자살보도와 자살생각의 영향관계에서 자살생각을 높일 것이다.

가설 8-1: 사회적 지지는 부모의 학대·폭력, 친인척의 자살경험과 자살생각의 영향관계에서 자살생각을 낮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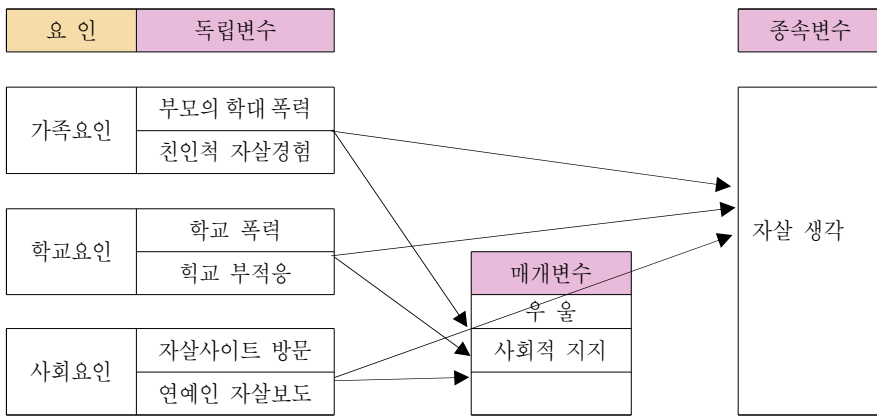
가설 8-2: 사회적 지지는 학교폭력, 학교부적응과 자살생각의 영향관계에서 자살생각을 낮출 것이다.

가설 8-3: 사회적 지지는 자살사이트의 방문, 연예인에 대한 자살보도와 자살생각의 영향관계에서 자살생각을 낮출 것이다.

(2) 분석의 틀

선정된 변수들을 토대로 본 논문의 분석의 틀을 작성하면 [그림-1]과 같다. 분석에

서는 3 개의 요인과 6 개의 독립변수로써 청소년의 자살생각이라는 종속변수를 설명해 보려고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가족요인은 부모의 학대와 폭력, 친인척의 자살 경험 등 청소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요인이고, 학교요인은 학교에서의 폭력경험, 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학업 스트레스)을, 사회요인에서는 자살 사이트의 방문경험, 연예인에 대한 자살보도 등의 변수를 고려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이 갖고 있는 우울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수로 고려하여 분석의 틀을 작성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분석의 틀

2. 조사도구(설문의 구성)

(1) 종속변수와 관련된 조사도구

본 논문의 종속변수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이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측정하기 위해 Reynolds(1998)의 30 문항으로 구성된 자살생각 척도(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를 번역하고 요인분석에 맞도록 재구성한 박병금(2006)과 아동복지학 교수의 연구에서 사용된 척도를 본 논문에 적용하였다. 척도는 총 14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alpha = 0.950$ 이었다.

(2) 독립변수와 관련된 조사도구

① 가족요인과 관련된 조사도구 : 가족요인 중에서 첫째, 부모의 폭력이나 학대와 관련하여서는 Straus(1979)가 제작한 CTS(The Conflict Tactics Scale) 척도를 바탕으로

본 논문의 성격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alpha = 0.870$ 이었다. 둘째, 친인척의 자살경험과 관련하여서는 가족이나 친척 중에 자살을 했거나 자살시도를 한 사람이 있는지를 단일문항으로 질문하였다.

② 학교요인과 관련된 조사도구: 학교요인 중에서 첫째, 학교폭력과 관련하여서는 광영길(2007)이 제작한 학교폭력 피해경험 척도를 사용하였고,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alpha = 0.933$ 이었다. 둘째, 학교부적응과 관련하여서는 학업스트레스를 위하여 원호택·김순화(1985), 최해림(1986)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이지현(2008) 등이 제작한 학업스트레스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alpha = 0.778$ 이었다.

③ 사회요인과 관련된 조사도구: 사회요인에서는 첫째, 인터넷 자살사이트의 방문과 관련하여서는 인터넷 자살사이트의 방문 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 최진(2011)이 수정·보완한 척도를 본 논문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alpha = 0.790$ 이었다. 둘째, 연예인에 대한 자살보도와 관련하여서는 김동숙(2010)이 사용한 척도를 본 논문의 성격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alpha = 0.857$ 이었다.

(3) 매개변수와 관련된 조사도구

① 우울과 관련된 조사도구: 우울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CES-D(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Depression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미국 정신보건 연구원에서 제작한 도구를 한국어판으로 개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alpha = 0.904$ 이었다.

②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조사도구: 사회적 지지의 측정도구는 Sarason 등(1983)의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SSAS)를 기초로 한미현(1995)이 번역하여 제작한 사회적 지지 평가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alpha = 0.947$ 이었다.

3. 자료의 수집과 분석방법

(1) 표본추출과 자료의 수집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하여서는 그 대상을 전국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수도권권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래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고, 선정된 지역 내에서는 표본을 무작위적

(randomly)으로 표출하되 조사대상으로서의 청소년들이 학교학생들임을 고려하여 지역의 학교를 방문하여 소규모 집단면접 설문방식으로 조사하였다.¹⁾

(2) 자료의 분석방법

본 논문을 위해서 기존의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가설을 설정함으로써 모형을 검증하였다. 모든 가설은 피어슨(Pearson)의 상관계수와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각 가설을 검증함에 있어서 양측검증을 사용하고 결정은 5% 유의수준에서 가설을 기각 또는 채택하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일부 변수에 대하여는 10% 유의수준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도 있다. 피어슨의 상관계수의 검증결과를 보충하기 위하여 분산분석 방법이 검증에 사용될 수도 있다. 이들 검증에 있어서 결정은 F-값의 5% 유의수준에서 기각 또는 채택하도록 한다. 이에 앞서 자살생각의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Cronbach's Alpha 값을 계산하였다.

나아가서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들의 우울과 사회적 지지를 매개변수로 하여 그 효과를 검정하려는 것도 본 논문의 목적의 하나이다. 먼저, 매개변수란 독립변수와 동일하게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지만, 순서의 면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사이에 있는 변수를 말한다. 매개변수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Van Dyne, et al., 1994: 765-802; Baron and Kenny, 1986: 1173-82).

i)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 : 회귀분석을 통하여 두 변수 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통계적 유의수준 아래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어야 한다.

ii)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 : 회귀분석을 통하여 두 변수 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통계적 유의수준 아래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어야 한다.

iii)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유의한 영향관계 : 회귀분석을 통하여 두 변수 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통계적 유의수준 아래서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어야 한다.

iv) 제2단계 회귀분석 결과 도출된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은 제3단계에서 도출된

1) 학년별, 학급별 소집단 면접식 설문조사이므로 회수율은 99.99% 이상이었음. 서울 7개 학급, 인천 7개 학급, 경기 8개 학급, 학급당 평균 28.7명이었음. 교실에서 조사자가 직접 학생들과 대면하여 설문내용을 설명하면서 조사를 진행하고 회수하여 전원 회수하였으며, 가끔 있는 불성실 답변 설문지 5부를 제외하였음 (유효 회수율 99.21%).

독립변수의 회귀계수 값보다 커야만 한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면 매개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게 된다.

IV. 분석결과와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배경

본 논문에서의 조사대상자들의 사회경제적 속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는 변수들 간의 독립성과 관련성을 보는 것이다. 본 논문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남학생과 여학생들 간에 학교유형(중학교, 고등학교), 부모의 학력, 부모의 연령, 부모의 종교, 집안의 경제적 형편 등 모두 유의확률 1%에서 독립성(차이)이 있었다. 조사대상에서 유효한 응답을 한 학생은 남학생 365명(57.84%), 여학생 266명(42.14%)로 총 631명으로 중학생 420명(66.56%), 고등학생 211명(33.44%)이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 분			성 별		전 체 (남+여)	통계량
			남학생	여학생		
성별구분	-	빈 도	365	266	631	-
		종백분율 (%)	57.84%	42.14%	100.00%	
학교유형	중학교	빈 도	239	181	420	$\chi^2 = 7.902$ d.f.=1 p=0.000
		종백분율 (%)	65.48%	68.05%	66.56%	
	고등학교	빈 도	126	85	211	
		종백분율 (%)	34.52%	31.95%	33.44%	
부모 학력 (높은 쪽)	국졸 이하	빈 도	23	17	8	$\chi^2 = 14.982$ d.f.=4 p=0.000
		종백분율 (%)	6.30%	2.63%	1.27%	
	중졸 이하	빈 도	39	25	64	
		종백분율 (%)	10.68%	9.40%	10.14%	
	고졸 이하	빈 도	85	80	165	
		종백분율 (%)	23.29%	30.08%	26.15%	
	대졸 이하	빈 도	186	129	315	
		종백분율 (%)	50.96%	48.50%	49.92%	
	대학원 이상	빈 도	32	15	47	
		종백분율 (%)	8.76%	5.63%	7.45%	

부모연령 (높은 쪽)	~39 세	빈 도	22	10	32	$\chi^2 = 12.945$ d.f.=3 p=0.000
		종백분율 (%)	6.03%	3.76%	5.07%	
	40~49 세	빈 도	178	142	320	
		종백분율 (%)	47.95%	53.38%	50.71%	
	50~59 세	빈 도	149	105	254	
		종백분율 (%)	40.82%	39.47%	40.25%	
부모 종교	기독교	빈 도	16	9	25	$\chi^2 = 13.658$ d.f.=3 p=0.000
		종백분율 (%)	4.38%	3.38%	3.96%	
	천주교	빈 도	151	134	285	
		종백분율 (%)	41.37%	50.38%	45.17%	
	불 교	빈 도	61	44	105	
		종백분율 (%)	16.71%	16.54%	16.64%	
경제적 형편	기타(무 교포함)	빈 도	63	50	113	$\chi^2 = 15.327$ d.f.=4 p=0.000
		종백분율 (%)	17.26%	18.80%	17.91%	
	아주 빈곤	빈 도	90	37	127	
		종백분율 (%)	24.66%	13.91%	20.13%	
	빈곤한 편	빈 도	46	32	78	
		종백분율 (%)	12.60%	12.03%	12.36%	
	보 통	빈 도	68	51	119	
		종백분율 (%)	18.63%	19.17%	18.86%	
합 계	부유한 편	빈 도	139	98	237	-
		종백분율 (%)	38.08%	36.84%	37.56%	
	아주 부유	빈 도	72	53	125	
		종백분율 (%)	19.73%	19.92%	19.81%	
	아주 빈곤	빈 도	40	32	72	
		종백분율 (%)	10.96%	12.03%	11.41%	
합 계	-	빈 도	365	266	631	-
		종백분율 (%)	57.86%	42.14%	100.00%	

2. 모형의 타당성 분석

여기에서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설명하는 6 개의 독립변수와 2 개의 매개변수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 모형전체로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갖는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것은 분산분석에서 F 검증을 통하여 가능하다. 본 모형에서는 $F = 76.460$, $p = 0.000$ 로 통계적 유의성이 있고, 모형의 설명력도 $R^2 = 0.475$, $adjR^2 = 0.462$ 로 모형에 사용된 변수로 청소년 자살생각의 변량을 47.5 % 나 설명하여, 설명력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자살생각에의 영향

요인은 비교적 논쟁거리가 된다고 판단된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본 논문에서의 모형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는 <표-2>와 같다.

<표-2> 분산분석표

	제곱합 (ss)	자유도 (df)	평균제곱 (ms)	F	유의확률 (p)
회귀	935.265	8	116.908	76.460	.000
잔차	952.371	623	1.529		
전체		631			

$R^2=0.475$, $adjR^2=0.462$, 종속변수: 청소년 자살생각

본 논문에서는 측정도구 자체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적절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내용 타당성을 확보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도구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로 선정된 8개의 각 변수들의 내용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3>과 같다.

이론적으로 도출된 8개의 각 변수들이 일관성을 보이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요인의 고유값인 아이겐 값(eigen value)이 1 이상인 변수에 대하여 베리맥스(varimax with Kaiser normalization) 회전방법으로 회전하였고, 4개의 요인, 8개의 변수에 대한 요인 부하량(factor loading)은 $h^2=0.60254(60.254\%)$ 이었으며 이 값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표-3> 변수의 요인분석 결과

요인	변 수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가족요인	부모의 학대, 폭력	.735	.152	.016	-.053	-.042
	친인척의 자살	.702	.245	.126	.103	-.067
학교요인	학교 폭력	.108	.643	.312	.241	.054
	학교 부적응	.175	.792	.067	.342	-.038
사회요인	자살사이트	.319	.435	.754	.163	-.072
	연예인 자살	.287	.427	.453	.251	-.081
매개요인	우 울	.325	.261	-.217	.824	.049
	사회적 지지	.254	.346	-.326	-.045	.635

추출방법: 주성분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3. 독립변수의 영향력 검토(가설의 검정)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검토해 보면 <표-4>와 같다.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를 보면,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적당한 크기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대체로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으며, <표-5>에서 보듯이 독립변수 간에 지나치게 높은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차한계와 분산 팽창요소(VIF)를 검토해 보아도 각 변수들은 잔차(residual)의 상관성에서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표-5>의 공차한계 참조).

<표-4> 변수들 간의 상관계수

변수 이름	1	2	3	4	5	6	7	8
1. 부모의 학대 폭력	1.000							
2. 친인척 자살	.071*	1.000						
3. 학교폭력	.385**	.061*	1.000					
4. 학교부적응	-.035	-.063*	.136**	1.000				
5. 자살사이트	.406**	.113**	.376**	.139**	1.000			
6. 연예인 자살	.353**	.149**	.334**	.054*	.621**	1.000		
7. 우 울	.380**	.084*	.428**	.036	.351**	.357**	1.000	
8. 사회적 지지	-.178**	-.028	-.102**	.307**	-.182**	-.231**	-.105**	1.000
9. 자살 생각	.283**	.156**	.342**	.041	.360**	.345**	.347**	-.203**

종속변수: 9. 자살생각, 독립변수: 1.~8., **: $p < 0.01$, *: $p < 0.05$.

이제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것은 표준화 회귀계수(β)로써 설명될 수 있다(<표-5> 참조).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 각 독립변수가 실제로 영향력을 얼마나 미치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먼저 회귀계수를 비교할 때, 첫째,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미성에 있어서는 1% 또는 5% 유의수준에서 검증하였다. 둘째, 회귀계수의 부호에 있어서는 그 부호가 정(+)인지, 부(-)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부호가(+)이면 가설의 설정에서 가정된 대로인 결과로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경험적 분석 결과가 일상적으로 기대되는 경험이나 이론적 기대와 일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5> 청소년 자살생각 영향요인에 관한 회귀분석 결과

요인	독립변수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	유의 확률(p)	공선성 통계량	
		b_i	$S.E.$	β_i			공차한계	VIF
	(상수)	.345	.246	-	1.548	.078		
가족요인	부모학대폭력	.012	.042	.023	.534	.043	0.598	1.854
	친인척 자살	.023	.108	.013	.254	.048	0.751	1.693
학교요인	학교폭력	.174	.033	.234	5.424	.000	0.684	1.962
	학교부적응	.095	.045	.093	1.637	.033	.735	1.891
사회요인	자살사이트	.138	.038	.203	4.305	.000	0.658	1.453
	연예인 자살	-.014	.040	-.021	-1.074	.045	0.632	1.654
매개요인	우울	.073	.045	.112	2.238	.024	0.572	1.736
	사회적 지지	-.113	.032	-.138	-3.304	.000	0.581	1.689
더미	성별	-.109	.054	-.072	-2.034	.035	0.923	1.086

성별 가변수: 여학생=0, 남학생=1, $F=20.451$, $R^2=.475$, $adjR^2=0.462$

이제 회귀계수와 그 통계적 유의성을 중심으로 종속변수인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을 요인별·변수별로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가족요인과 청소년 자살생각

① 부모의 학대와 폭력: 부모의 학대와 폭력이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본 논문에서의 가설이었다. 분석결과 $\beta=0.023$, $p=0.043$ 이었다. 첫째,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에서는 부모의 학대와 폭력이 심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진다는 가설이 5% 유의수준에서 채택되었다. 이것은 부모의 학대와 폭력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되 통계적 유의성은 조금 낮다는 의미이다. 둘째, 회귀계수의 부호에 있어서도 부모의 학대와 폭력이 심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진다고 하여 그 방향성이 일치한다. 즉, 경험적 분석결과가 일반적인 이론적 기대와 같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강대영(2014)의 중·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관한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부모폭력의 경우, $\beta=-.066$, $p>0.1$) 그 이유는 위의 연구는 부모폭력과 학대경험을 분리하여 변수로 취급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폭력경험의 경우, $\beta=.162$, $p<0.05$).

그러나 다른 연구에서 부모의 폭력은 청소년의 자살과 높은 상관이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Perkins and Jones, 2004). 청소년이 가정에서 주로 경험하게 되는 폭력은 부모 간의 폭력을 목격하는 경우와 부모로부터 직접 학대를 당하는 경우이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어떤 형태의 가정폭력 경험이든 자녀들에게 심리적, 행동적, 사회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Gould et al., 2003; 김재엽, 2007; 손병덕, 2005), 특히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자살생각의 위험이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Berenson et al., 2001)

② 친인척의 자살경험: 친인척의 자살을 목격한 경험이 있을수록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은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본 논문에서의 가설이었다. 분석결과 $\beta=0.013$, $p=0.048$ 이었다. 첫째,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에서는 친인척의 자살경험이 있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진다는 가설이 5% 유의수준에서 채택되었다. 이것도 부모의 학대와 폭력처럼 친인척의 자살경험을 목격할수록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 통계적 유의성은 조금 낮다는 의미이다. 둘째, 회귀계수의 부호에 있어서도 친인척의 자살경험을 목격할수록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이 높아진다고 하여 그 방향성은 일치한다. 즉, 경험적 분석결과가 일반적 이론적 기대와 같게 나오고 있다.

이 결과는 강대영의 연구결과($\beta=.123, p<0.05$)와도 일치한다. 많은 연구들이 한 사람 또는 그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자살한 청소년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높은 자살 시도나 자살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Bridge et al., 1997; Gould et al., 1996), 자살을 시도했던 청소년들의 친인척 중에는 1-2명의 자살시도자나 자살자가 있다고 한다(김현실, 2002). 주위에 자살한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자살생각의 유무에 차이가 있었으며, 전체 응답자 가운데 주위에 자살한 사람이 있다는 청소년이 자살생각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청소년상담원, 2007). 나아가 친구의 죽음은 우울증 발생의 증가와 관련되고,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며(Brent et al., 1993), 친구가 자살한 청소년은 자기 자신도 자살생각이나 행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들도 있다(Bjarnason and Thorlindsson, 1994; Blum et al., 1992; Buddeberg et al., 1996). 이는 자살의 전염성과도 관련 있으며, 특히 청소년 시기에서 주위 또래의 영향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2) 학교요인과 청소년 자살생각

① 학교폭력: 학교폭력이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본 논문에서의 가설이었다. 분석결과 $\beta=0.234$, $p=0.000$ 이었다. 첫째,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에서는 학교폭력이 심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진다는 가설이 1% 유의수준에서 채택되었다는 의미이다. 둘째, 회귀계수의 부호에 있어서도 학교폭력이 심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진다고 하여 그 방향성이 일치한다. 즉, 경험적 분석결과가 일반적인 이론적 기대와 같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일상적 기대와도 완전히 일치한다. 이 결과는 다른 연구에서와도 유사하다(강대영, 2014; $\beta = 0.145, p < 0.05$).

또래로부터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청소년들에게 신체적 고통은 물론이고, 심리적 외상까지 남긴다고 하며(박병금, 2007), 학교폭력은 자살생각과 연관성이 높고 학교폭력에 많이 노출이 될수록 자살위험이 더 높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학교에서 또래로부터 신체적·심리적·언어적 폭력이 자살에 영향을 주며,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학교폭력의 피해는 연관성이 있다 하겠다(Baldry and Winkel, 2003).

청소년들이 자살을 시도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촉발사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괴롭힘이나 따돌림 등 학교폭력이 17.0%로 가장 많았고(김기환·전명희, 2000), 청소년들이 자살하고 싶은 상황을 설명하는 가장 높은 순위의 요인이 친구로부터의 따돌림과 학교폭력이었으며(하연희, 2001), 학교 내에서 집단따돌림이 자살생각과 자살시도로 연결되었다고 한다(전영주·이숙현, 2000).

② 학교부적응: 학교부적응이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본 논문에서의 가설이었다. 분석결과 $\beta = 0.093, p = 0.033$ 이었다. 첫째,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에서는 학교부적응이 심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진다는 가설이 5% 유의수준에서 채택되었다. 이것도 학교부적응이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통계적 유의성에 있어서는 조금 낮다는 의미이다. 둘째, 회귀계수의 부호에 있어서도 학교부적응이 심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진다고 하여 그 방향성은 일치한다. 즉, 경험적 분석결과가 일반적인 이론적 기대와 같게 나오고 있다. 이 결과도 다른 연구에서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강대영, 2014; $\beta = .092, p < 0.01$).

학교부적응에서는 학업관련 성적, 교사와의 관계, 또래관계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학업 스트레스가 가장 큰 비중을 갖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학업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은 이미 선행연구들에서 검증된 바 있다(권세원·송인한, 2011; 최인재, 2014; 노윤채 외, 2015).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된 주요 요인이 학교성적인 것으로 나타났고(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13), 자살 원인에 대한 국가간 비교에서도 한국 청소년들은 대학입시 경쟁으로 인한 성적과 학업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이었다(문경숙, 2006).

또한 학교성적과 입시 스트레스의 압박은 중학생보다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업에

부담을 느끼는 고등학생이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소년 자살충동의 위험성은 연령이 올라갈수록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고 그 정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조성진 외, 2002).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SNS 내용을 분석한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영향요인 중 제 1 위가 학업성적과 진학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3).

(3) 사회요인과 청소년 자살생각

① 자살 사이트 방문: 자살 사이트의 방문이 많을수록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본 논문에서의 가설이었다. 분석결과는 $\beta=0.203$, $p=0.000$ 이었다. 첫째,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에서는 자살 사이트 방문이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진다는 가설이 1% 유의수준에서 채택되었다는 의미이다. 둘째, 회귀계수의 부호에 있어서도 자살 사이트의 방문이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진다고 하여 그 방향성도 일치한다. 즉, 경험적 분석결과가 일반적인 이론적 기대와 같게 나오고 있다. 이는 다른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beta=.135$, $p<0.05$)를 보이고 있다(강대영, 2014).

인터넷의 확산에 따라 자살사이트가 등장하여 청소년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사이트는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과 자살을 의논하고 정보를 교환하여 자살을 돕기까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0년 4월부터 국내 자살 사이트가 홈페이지, 동호회 형식으로 개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000년 12월부터 자살 사이트로 인한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주지홍, 2003). 이와 같이 자살 사이트는 그 생성시간에 비해 큰 과급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첫 사망자가 발생한지 6개월 만에 총 25명이 자살 사이트를 통해 자살했다고 한다(문성원, 2002).

② 연예인 자살 보도: 연예인에 대한 자살 보도가 많아질수록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 본 논문에서의 가설이었다. 분석결과는 $\beta=-0.021$, $p=0.045$ 이었다. 첫째,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에서는 연예인에 대한 자살 보도를 접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진다는 가설이 5% 유의수준에서 채택되었다. 이것도 연예인 자살보도가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되, 그 통계적 유의성이 조금 낮다는 의미이다. 둘째, 회귀계수의 부호에 있어서는 연예인에 대한 자살 보도를 많이 접할수록 자살생각이 낮아진다고 하여 그 방향성이 거꾸로 이다. 즉, 경험적 분석결과가 일반적인 이론적 기대와는 다르게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연예인·유명인의 자살에 따른 자살충동 경험에 유의성 있게 영향을 미친다($\beta=.21$, $p<0.001$)는 연구도 있으며(용미주, 2011), 연예인 자살보도에 대한 우울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연구도 있다(장문택, 2002). 언론이 연예인 자살보도를 집중적으로 다루거나 자살보도를 지나칠 정도로 상세하게 보도하는 선정성은 자살생각에 머무는 청소년들에게 동기적인 역할을 하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우울증상에 영향을 미치게 하여 자살생각을 할 확률이 높게 한다(강대영, 2014; $\beta = .168, p < 0.01$). 이에 대해서는 좀더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4) 매개요인과 청소년 자살생각

우울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매개효과 분석은 다음 절에서 검토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우울과 사회적 지지가 자살생각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만 검토하기로 한다.

① 우울: 우울이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본 논문에서의 가설이었다. 분석결과 $\beta = 0.112, p = 0.024$ 이었다. 첫째,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에서는 우울이 심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진다는 가설이 5% 유의수준에서 채택되었다는 의미이다. 둘째, 회귀계수의 부호에 있어서도 우울이 심할수록 자살생각이 높아진다고 하여 그 방향성이 일치한다. 즉, 경험적 분석결과가 일반적인 이론적 기대와 같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일상적 기대와 완전히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위의 강대영의 결과와도 유사하다($\beta = .115, p < 0.01$).

고등학생의 우울과 자살생각에 대한 경로분석을 실시한 연구에서도 우울이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드러났으며, 우울이 자살생각의 선행요인이라는 기존의 견해를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전영주, 2001). 또한 우울, 소외감, 학교애착 등의 요인 중에서 우울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이은숙, 2002), 청소년이 가지는 우울성향으로 인해 자살충동이 강화된다는 사실이 조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다(정혜경 외, 2003). 더욱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우울, 충동성, 자살생각 간의 회귀분석을 한 결과 자살생각은 주로 우울증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신민섭 외, 1990).

②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가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이 본 논문에서의 가설이었다. 분석결과 $\beta = -0.138, p = 0.000$ 이었다. 첫째,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에서는 사회적 지지가 많을수록 자살생각이 낮아진다는 가설이 1% 유의수준에서 채택되었다는 의미이다. 둘째, 회귀계수의 부호에 있어서도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살생각이 낮아진다고 하여 그 방향성이 일치한다. 즉, 경험적 분석결과가 일반적인 이론적 기대와 같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일상적 기대

와도 완전히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강대영의 결과($\beta = -.143, p < 0.05$)나 진혜민(2012)의 결과 ($\beta = -.112, p < 0.001$)와도 일치하며, 사회적 지지이론에 의하면,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인은 이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경험하게 되지만, 사회적 지지가 서로간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게 한다 (Weinberger et al., 1990)는 주장과도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다.

(5) 성별요인과 청소년 자살생각

본 논문에서는 성별요인 즉, 남학생과 여학생에 따른 청소년 자살생각에 대한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더미변수(dummy variable)를 도입하였다.²⁾ 분석결과 $\beta = -0.072, p = 0.035$ 이었다. 첫째, 독립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에서는 여학생과 남학생이라는 성별에 따른 자살생각은 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었다. 둘째, 회귀계수의 부호에 있어서는 부(-)으로 나와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같은 조건에서 -0.072 만큼 자살생각을 덜 갖는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기대와 일치한다. 즉, 경험적 분석결과가 일반적인 이론적 기대와 같게 나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의 일상적 기대와도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도 위에서 언급한 강대영(2014)의 결과와 일치한다 ($\beta = .077, p < 0.01$).³⁾ 그밖에 많은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이지현, 2008; 박병급, 2006; 하연희, 2001; 홍나미, 1998).

남자 청소년은 부모의 교육정도, 수입, 복지수당 수급 등 지위적(status) 특징과 관련되며, 여자 청소년은 부모의 부재나 보호, 교사나 친구의 관심 등의 관계적(relational) 특징과 관련된다. 이렇게 청소년들의 자살 관련 행동과 관련된 특징에는 성별 차이가 있다(Liu and Tein, 2005). 환언하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의 변수와 관련된 특징들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여자청소년의 경우는 사회경제적 지위보다는 자신들과 소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중요한 타자와의 관계에서의 상처나 혼란을 겪는 것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친다(Watt and Sharp, 2001)는 주장과도 일치한다.

2) 본 논문에서 더미변수는 여학생을 0, 남학생을 1로 하여 계산되었음.

3) 표준회귀계수의 부호가 다른 것은 더미변수의 코딩을 남학생을 0, 여학생을 1로 하였기 때문임.

4. 매개요인의 매개효과 분석

(1) 우울의 매개변수 효과

3 개의 독립변수 요인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우울이 매개변수로서의 효과가 있느냐 여부는 <표-6>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표-6> 우울의 매개변수 효과

구 분	제 1 단계	제 2 단계	제 3 단계	
	우 울	자살 생각	지살 생각	공차한계
상 수	2.340	3.682	4.683	
가족요인	.124 (.117)	.113 (.106)**	.107 (.098)**	.482
학교요인	.263 (.241)	.064 (.059)**	.061 (.053)**	.326
사회요인	.102 (.097)	.145 (.132)**	.133 (.116)**	.541
우 울			.310 (.298)***	.863
RSQ	.142	.209	.342	
adj RSQ	.123	.204	.338	
F	5.347	36.114***	42.032***	

** : $p < 0.05$, *** : $p < 0.01$, (): 표준화 회귀계수

첫째, 가족요인에서는 5 % 유의수준에서 매개변수의 효과가 있다. 둘째, 학교요인에서는 5 % 유의수준에서 매개변수의 효과가 있으며, 이는 부분매개효과이다. 셋째, 사회요인에서는 그 매개변수의 효과는 완전매개효과라 하겠다. 그러나 이것은 5 %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은 있다. 그리고 이 판단모형은 $F=42.032$, $p=0.000$ 으로서 1 %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 공차한계를 보면 모두 0.1보다 커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2) 사회적 지지의 매개변수 효과

3 개의 독립변수요인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력 관계에서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가 매개변수로서 효과가 있느냐 여부는 <표-7>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첫째, 가족요인에서는 5 % 유의수준에서 매개변수 효과가 있으며, 이것은 부분매개효

과이다. 둘째, 학교요인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매개변수의 효과가 있으며, 이것도 부분매개효과이다. 셋째, 사회요인에서는 5% 유의수준에서 매개변수 효과가 있으며, 이것도 부분매개효과이다. 이 모형은 $F=48.352$, $p=0.000$ 으로서 1%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다. 공차한계를 보면 모두 0.1 보다 커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표-7〉 사회적 지지의 매개변수 효과

구 분	제 1 단계	제 2 단계	제 3 단계	
	사회적 지지	자살 생각	지살 생각	공차한계
상 수	3.256	3.982	4.357	
가족요인	-.095 (-.087)	.113 (.106)	.089 (.081)**	.367
학교요인	-.267 (-.253)	.064 (.059)	.058 (.053)**	.427
사회요인	-.143 (-.138)	.145 (.132)	.131 (.127)**	.524
사회적 지지			-.237 (-.234)***	.852
RSQ	.101	.365	.468	
adj RSQ	.098	.343	.453	
F	5.312	41.237***	48.352***	

** : $p<0.05$, *** : $p<0.01$, () : 표준화 회귀계수

V. 결 론

1. 요약

본 논문은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러한 요인들이 자살생각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으며, 우울과 사회적 지지라는 매개요인의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요인을 검토하였다. 청소년은 자기 자신과 환경적 여러 요인의 상호작용과 주관적 해석 결과에 따라 적절히 반응하므로 청소년의 자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황적·환경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 청소년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살에 대한 심각성을 경

고한다거나 자살행동 억제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그 효과가 상당히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자살은 자살생각-자살계획-자살시도-자살행동의 일련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현상이므로 먼저 가장 선행단계인 자살생각을 지니고 있는지의 유무를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러한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가능한 한 차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 학교요인, 사회요인에서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가족요인에는 부모의 학대·폭력, 친인척의 자살경험을, 학교요인에는 학교폭력, 학교부적응을, 사회요인에는 자살 사이트의 방문, 연예인에 대한 자살보도로 구성하고, 우울을 자살생각에의 강화(매개)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를 자살생각에의 완화(조절)요인으로 역할을 하는지, 요인들 간에 어느 정도나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는데, 우울은 자살생각에 강화요인으로, 사회적 지지는 자살생각에 완화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2. 정책적 함의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정책적 함의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다. 자살생각은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개입되어 국가정책이 개입할 여지는 상대적으로 적어서 제한적이라는 점을 먼저 지적해 둔다.

첫째, 가족요인에서 부모학대와 폭력은 이를 방지하도록 하는 사회의 지속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친인척의 자살경험에 대하여는 부모에 대한 사회교육을 통해 그러한 경험의 청소년에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도록 노력한다.

둘째, 학교요인에서는 학교폭력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하는 노력을 하며, 학교 부적응은 방과후 교육 등을 통한 학습스트레스의 감소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하여 학교의 청소년 문화를 개선한다.

셋째, 사회요인에서 자살 사이트의 방문과 관련하여서는 청소년 아님을 인증하는 인증제를 실시하여 청소년의 자살 사이트 방문을 억제하고 연예인 자살보도는 신문 방송 등 각종 언론에서 이에 대한 보도를 자제를 권고할 필요가 있다.⁴⁾

4) 보건복지부가 기존의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업그레이드한 자살보도 권고기준을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자살예방의 날인 9월 10일에 발표하였음. (자살예방의 날은 2003년 9월 10일부터 시작되었음).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의 9원칙은 다음과 같다. i)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넷째, 매개요인에서는 우리나라의 교육전반에서 지나친 지식교육보다는 인성교육 등으로의 전환을 통하여 청소년 상호간의 우의를 도모하는 교육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물론 이러한 제안은 장기적인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다. ii)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한다. iii)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iv) 자살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사람들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 v)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도 피해야 한다. vi)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 vii) 자살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한다. viii) 자살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ix) 인터넷에서의 자살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

<참고문헌>

- 강대영(2014),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세한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경향신문 (2013), “자극적 자살보도 이제 ‘그만’ 보도 권고기준 지켜야.” 2013. 12. 5.
- 고 선(2009), 학교환경이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성은·홍혜영(2009), 중학생의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6(11): 97-124.
- 곽영길(2007),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세원, 송인한(2011), 중학생의 학업스트레스와 자살사고 간 관계에서 인지왜곡이 가지는 조절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3(3): 67-92.
- 김기환·전명희(2000), 청소년 자살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학》, 9: 127-130.
- 김동숙(2010),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생태체계적 관점의 연구: 공주시 지역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민경(2012), 대학생의 부정적 정서, 가족탄력성 및 자존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경로 모형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17(1): 61-83.
- 김애희·윤종희·김리진(2010), 인문계열 남자 고등학생의 학교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변인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1(2): 177-201.
- 김재엽(2007), 《한국인의 가정폭력》, 서울: 학지사
- 김재엽·이근영(2010), 학교폭력 피해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7(5): 121-149.
- 김진주(2011), 청소년의 스트레스, 부모-자녀 의사소통, 우울 및 자살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실(2002), 청소년의 성격 특성, 가정 역동적 환경 및 자살시도 간의 관계, 《대한간호학회지》, 32(2): 231-242.
- 김형수(2006), 생애주기별 자살현황과 예방대책: 노인과 청소년 자살의 비교를 중심으로. 《노인복지연구》, 34: 271-292.

- 노윤채, 김경숙, 박희서(2015),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가 자살충동에 미치는 인과관계의 성별 차이검증,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0(5): 133~140.
- 문경숙(2006),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영향: 부모와 친구에 대한 애착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27(5): 143-157
- 문성원(2002), 인터넷 자살 사이트에 의해 매개된 자살: 사례 중심의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2): 461-485.
- 박병금(2006),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자살생각, 《한국학교사회복지학회》, 10: 41-76.
- 박병금(2007), 청소년의 가족환경요인과 자살생각, 《생활과학연구논총》, 11(1): 1-17.
- 박병금(2009), 청소년 우울의 발달경로와 자살생각, 《정신보건사회사업》, 31(1): 207-235.
- 박선희(2008), 청소년기 인터넷 사용 수준과 자살생각과의 연관성. 《한국학교보건학회지》, 21(2): 23-33.
- 박재숙(2011), 학교위험요인이 청소년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Baumeister의 도피이론 모형의 검증을 통해,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재연(2010), 부모로부터 학대받은 경험이 있는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중학생과 고등학생 집단 간 차이, 《한국가족복지학》, 28: 61-92.
- 박종익(201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에 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15), 《경제협력개발기구 건강지표》.
- 손병덕(2005), 일반청소년, 학습장애 청소년의 우울 및 자살충동에 미치는 다변적 요인 예측, 《청소년학연구》, 12(1): 207-228.
- 신민섭 · 박광배 · 오경자 · 김중술(1990), 고등학생의 자살 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 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1): 1-19.
- 신선철(2012), 일부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용미주(2011), 청소년의 자살생각과 관련변인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채영 · 김관희(2011), 청소년의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변인들 간의 다차원적 구조분석. 《청소년학연구》, 18(4): 219-240.

- 원호택 · 김순화(1985), 대학생의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학생연구》, 20(1): 43-51.
- 이근영 · 최수찬 · 공정석(2011), 부모-자녀간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학업스트레스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8(5): 83-108.
- 이은숙(2002), 청소년의 소외감, 우울과 자살생각에 관한 구조모형,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창식 · 정미나 · 김윤정(2012), 중·고등학생 학교급에 따른 청소년 자살생각의 예측요인: 의사결정나무 분석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3(1): 31-55.
- 이지현(2008), 가출 청소년의 가족 이미지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채곤(2013), 사이버 범죄에 관한 연구: 허위사실 유포죄, 사이버 모욕죄, 인터넷 실명제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선희 · 이미애(2010), 청소년의 자살생각 관련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7(8): 27-55.
- 장은진(2011), 한국에서의 청소년 자살연구 개관과 향후 방향성, 《미래청소년학회지》, 8(4): 171-195.
- 전영주(2001), 우울증을 매개로 한 청소년의 자살구상에 관한 가족 및 학교환경의 경로분석모델, 《대한가정학회지》, 39(1): 151-167.
- 전영주 · 이숙현(2000), 청소년의 자살 구상과 관련 변인분석, 《청소년학연구》, 7(1): 221-246.
- 정혜경 · 안옥희 · 김경희(2003), 청소년의 자살충동에 미치는 예측요인, 《청소년학연구》, 10(2): 107-126.
- 조성진, 전홍진, 김장규, 서동우, 김선욱, 함봉진, 서동혁, 정선주, 조맹제(2002),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자살사고 및 자살시도의 유병률과 자살시도의 위험요인에 관한 연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41(6): 1142-1155.
- 주지홍(2003), 《자살사이트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지추련(2012),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성별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진혜민(2012), 청소년 자살생각에 관한 메타경로분석: 스트레스 과정 모델 (Stress Process Model)을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차미영(2010), 고등학생의 자살생각에 대한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및 우울

의 효과,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인재(2010), 청소년기 자녀의 자살생각에 대한 부모자녀 관계의 영향: 자아존중감 및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7(9): 105-130.

최 진(2011), 고등학생의 자살위험 모형,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최해림(1986), 한국 대학생의 스트레스 현황과 인지: 행동적 상담의 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하연희(2001), 중학생의 자살생각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하정미(2011), 상담가의 자살예방 사이버 상담경험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국청소년상담원(2008), 《2007 청소년 자살관련 실태 조사》.

홍나미(1998),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사회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Baldry, A. D. and Winkel, F. W., (2003), "Direct and Vicarious Victimization at School and at Home as Risk Factors Suicidal Cognition among Italian Adolescent," *Journal of Adolescence*, 26(6): 703-716.

Bandura, A., (1973),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215.

Baron, R. M. and Kenny, D. A., (1986), "The Moderate-Mediator Variable Distinction in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Conceptual, Strategic and Statistical Consider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6): 1173-1182.

Berenson, A. B., Wiemann, C. M., and McCombs, S., (2001), "Exposure to Violence and Associated Health-risk Behaviors among Adolescent Girls," *Archives Pediatrics and Adolescent Medicine*, 155(11): 238-242.

Bernstein KA, et al., (2007), "Ribosome Biogenesis is Sensed at the Start Cell Cycle Checkpoint," *Molecular Biology of the Cell*, 18(3): 953-64.

Bjarnason, T., and Thorlindsson, T. (1994), "Manifest Predictors of Past Suicide Attempts in a Population of Icelandic Adolesce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24(4): 350-358.

- Blum, R. W., Harmon, B., Harris, L., Bergeisen, L., and Resnick, M. D. (1992), "American Indian-Alaska Native Youth Health," *The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7 : 1367-1644.
- Boege, Isabel, Nicole Corpus, Renate Schepker and Joerg M. Fegert, (2014), "Pilot Study : Feasibility of Using the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 during Acute Suicidal Crisis,"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and Mental Health*.
- Brent, D. A., Perper, J. A., Moritz, G., Allman, C., Roth, C., Schweers, J., Balach, L., Baugher, M. (1993), "Psychiatric Risk Factors of Adolescent Suicide : A Case Control Study,"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dolescent Psychiatry*, 32(3) : 521-529.
- Bridge, J. A., Brent, D. A., Johnson, B. A., and Connolly, J., (1997), "Familial Aggregation of Psychiatric Disorders in a Community Sample of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6(5) : 628-637.
- Buddeberg, C., Buddeberg, F. B., Gnam, G., Schmid, J., and Christen, S. (1996), "Suicidal in Swiss Student : An 18-month Follow-up Survey," *Crisis*, 17(2) : 78-86.
- Cohen, S. and Hoberman, H. M., (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s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2) : 99-125.
- Dubow, E. F., Kausch, D. F., Blum, M. C., Reed, J., and Bush, E., (1989), "Correlates of Suicidal Ideation and Attempts in a Community Sample of Junior High and High School Students,"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 158-166.
- Durkheim, Emile, (1951), *Suicide : A Study in Sociology*. Glencoe, Illinois : Free Press.
- Evans, E., Hawton, K., and Rodham, K., (2004), "Factors Associated with Suicidal Phenomena in Adolescents : A Systematic Review of Population-based Studie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8) : 957-979.
- Fergusson, D. M., Woodward, L. J., and Horwood, L. J., (2000), "Risk Factors and Life Processes Associated with the Onset of Suicidal Behavior during

- Adolescence and Early Adulthood,” *Psychological Medicine*, 30(1) : 23-39.
- Gould M. S., Fisher, P., Parides M., Floyr M., and Shaffer, D., (1996), “Psychosocial Risk Factors of Child and Adolescent Completed Suicide,” *Arch Gen Psychiatry*, 53(12) : 1155-1162.
- Gould M. S., Greenberg T, Velting D. M, Shaffer D., (2003), “Youth Suicide Risk and Preventive Interventions : A Review of the Past 10 Year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dolescent Psychiatry*, 42(4) : 386-405.
- Helgeson, Vicki S., (2003), “Social Support And Quality Of Life,” *Quality of Life Research*, 12, Supplementary 1 : 25-31
- House, James S., and Robert L. Kahn, (1985), “Measures and Concepts of Social Support,” in Cohen, S. and S. L. Syme (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pp. 83-108). San Diego, CA : Academic Press.
- Lazarus, R. S., and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 Springer Publishing Company, Inc..
- Liu X., and Tein, J., (2005), “Life Events, Psychopathology and Suicidal Behavior in Chinese Adolescent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86(2/3) : 195-203.
- Perkins, D. F. and Jones, K. R., (2004), “Risk Behaviors and Resiliency within Physically Abused Adolescents,” *Child Abuse and Neglect*, 28(5) : 547- 563.
- Reynolds W., (1998), *SIQ,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 Professional Manual*. Florida :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Rigby, K. and Slee. P. T., (eds.), (1998), *Children’s Peer Relations*. London : Routledge.
- Rigby, K. and Slee, P. T., (1999), “Australia,” in P. K. Smith et al., *The Nature of School Bullying*, London : Routledge and Kegan, pp. 324-339.
- Sarason, I. G., Levine, H. M., Basham, R. B., (1983), “Assessing Social Support : The Social Support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 127-139.
- Stack, S., (2000), “Suicide : A 15-year Review of the Sociological Literature. Part I : Cultural and Economic Factors,” *Suicide Life Threatening Behavior*, 30(2) : 145-162.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 The Conflict

- Tactics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 75-88.
- Van Dyne L. V., Graham, J. W. and Dienesch, R. M., (1994),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 Construct Redefinition, Measurement and Valid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7(4) : 765-802.
- Watt, T. T., and Sharp, S. F., (2001), "Gender Differences in Strains Associated with Suicidal Behavior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3) : 333-348.
- Weinberger, M., Tiemey, W. M., Booher, P. and Hiner, S. L., (1990), "Social Support, Stress and Functional Status in Patients with Osteoarthritis," *Social Science and Medicine*, 30(4) : 503-508.

<Abstract>

An Analysis on Determinants of Youth Suicidal Ideation

Myung-Sook Hong*

This paper is to examine determinants of youth suicidal ideation. This study also attempts to identify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as a mediated variable. First, It is found that school violence and visit to internet suicide sites affect directly on suicidal ideation. Depression is a most significant variable predicting the suicidal ideation. Depression appears to have a direc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While depression is treated as a intervening variable, parental mistreatment and violence are meaningful factor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though indirectly.

And school violence and suicidal reports of people in entertainment land follows. Social support is also found to have direc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School maladjustment indirectly affects youth suicidal ideation. The analysis of data shows that the factors relating to suicidal reports of people in entertainment land have a direct and significan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Experience having suicidal acts of relatives, parental maltreatment and violence, and school violence are also found to have relationships with youth suicidal ideation. Second, depression and social support as a mediated variable appear to have direct effect on suicidal ideation.

Social support as a controlling factor is confirmed to alleviate youth suicidal ideation. Third, it appears that the girl students seems to spend more time on suicidal ideation than the male students.

As a whole, this study suggests that determinants affecting suicidal ideation must be curved in order to prevent youth suicidal ideation. In this model, 9 independent

variables explained 47.5 % of total variance of dependent variable which is youth suicidal ideation ($R^2=0.475$, $adjR^2=0.462$).

Key Words : suicidal ideation, depression, social support

*corresponding author(main author): Doctoral Student, Seoul Hanyoung University, y311077@naver.com

논문기고일 : 2017년 03월 30일

심사완료일 : 2017년 04월 17일

방법론심사 : 2017년 05월 19일

게재확정일 : 2017년 05월 19일

<필자 소개>

홍 명 속

서울한영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생으로서 예닮공동체 운영·연구위원으로 일해 오면서, 청소년 지도사, 심리상담사, 가정폭력상담사, 보육교사 등의 자격을 소지하고, 청소년 상담을 비롯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등 청소년 문제의 실무적 차원에서 많은 기여를 해왔으며, 학문적으로는 청소년 권리연구, 청소년 상담 및 청소년 복지정책의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다. 논문에는 청소년 폭력행위의 영향요인이 있다.